

『輔行訣臟腑用藥法要』에 기재된 『傷寒雜病論』 方劑에 관한 小考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研究所²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鍼灸學教室³

余旼環^{1, 2} · 尹鍾和³ · 金基郁^{1, 2 *}

Discussion about prescriptions from *Sanghanjabbyungron*(傷寒雜病論), reported in *Bohenggyuljangbuyongyakbubyo*(輔行訣臟腑用藥法要)

Yeo Min-Kyung^{1, 2} · Yoon Jong-Hwa³ · Kim Ki-Wook^{1, 2 *}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²Institut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³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Through the study of *Bohenggyuljangbuyongyakbubyo*(輔行訣臟腑用藥法要) focusing on the newly illuminated subject 'The study of *Donhuang*(敦煌學)' of China, the author analyzed and researched *Donhuangzhongyiyakjunseo* · *Bohenggyuljangbuyongyakbubyo*(敦煌中醫藥全書 · 輔行訣臟腑用藥法要) in order to study and report the origin of prescriptions from *Sanghanjabbyungron*(傷寒雜病論), which was written by *Zhangzhongjing*(張仲景).

Among around 50 prescriptions included in *Bohenggyul*, 18 prescriptions similar to *Sanghanjabbyungron* could be classified in five different manners as follows.

- 1) There are nine examples whose prescription composition and chief virtue are same but names different.
- 2) There are five examples whose prescription composition is same but chief virtue and names different.
- 3) There are two examples whose names are same but prescription composition and chief virtue different.
- 4) There is one example of prescription as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prescriptions.
- 5) There is one example whose prescription composition and possible variations of prescription are same but chief virtue different.

Key Words : *Bohenggyuljangbuyongyakbubyo*, *Tangyekgyunbub*(湯液經法), *Sanghanjabbyungron*, 18 prescriptions

I. 緒 論

* 교신저자 : 김기욱,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kkw@dongguk.ac.kr Tel : 054-770-2664
접수일(2013년 10월18일), 수정일(2013년 11월12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15일).

최근 北京中醫研究院이 河北省에서 梁·陶宏景 撰이라 題한 『輔行訣臟腑用藥法要』(이하 『보행결』로 간칭)의 筆寫本을 기증 받았는데, 앞에는 闕文이 있고 뒤에는 結尾가 없지만 비교적 완전하게 50餘首

의 方劑를 기재하고 있다.

평소 논자가 『傷寒雜病論』(이하 『상한론』)으로 간칭)을 공부함에 있어 ‘四方 四神湯에 朱雀湯이 빠진 이유와 유독 靑龍湯에만 大小의 구분이 있는가?’에 관한 의문을 품게 되었고, ‘아마도 大小陰陽旦湯과 사방 사신탕의 유래는 道家와 28宿과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는 상상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南北朝 시기에 저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행결』에서 “도홍경이 말하길, 陽은 升陽의 방위로 黃芪를 위주로 한다. 陰은 扶陰의 방위로 柴胡로서 위주로 한다. 靑龍은 宣發의 방위로 麻黃을 위주로 한다. 白虎는 收重의 방위로 石膏를 위주로 한다. 朱鳥는 清滋의 방위로 鷄子黃을 위주로 한다. 玄武는 溫滲의 방위로 附子를 위주로 한다. 이 六方은 六合의 正精로 陰陽의 升降이며 金木의 交互이며 水火가 既濟하여 이내 神明의 방제이다. 張機가 편찬한 『상한론』은 道家의 명칭을 피하였기에 방제에는 모두 正名하지 않았고, 단지 어떠한 약물에 따른 명칭은 주요 약물에 따라 인식이 옮겨졌을 뿐이다.”¹⁾의 문장에서 논자의 의문이 해소되었고, 아울러 『보행결』에 관한 주변연구²⁾³⁾⁴⁾⁵⁾⁶⁾⁷⁾⁸⁾를 통하여 東漢시대에 저작으로 알려진 『상한론』 일부

방제의 유래가 『湯液經法』에 근거하고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道家의인 性格을 띠고 있는 『보행결』에서 언급된 방제 大小四神湯 등 18수가 『상한잡병론』에서 어떠한 方名으로 숨어 유전되었으며 이들 간의 方劑 構成과 主治의 차이점에 관한 의문을 탐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논자는 본론의 연구를 통하여 『보행결』에 수록된 방제와 『상한론』의 유관한 18수 방제를 비교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輔行訣』과 『湯液經法』 및 『傷寒雜病論』과의 관계

1) 敦煌 遺書인 『보행결』의 발굴과정 및 개요 (1) 발굴 과정

돈황 유서 가운데 대표적인 저작인 『보행결』은 원래 두루마리에 쓰여 敦煌의 千佛洞에 수장되어 있다가 清代 末 프랑스의 선교사인 Paul Pelliot에 의해 도난당했지만, 그 후 河北省 威縣의 中醫師인 張僱南에 의해 수집되어 집안에 대대로 귀하게 전해져 그의 嫡孫인 張大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文化革命’시대에 이 책은 불행히도 훼손되었다.

현재 겨우 2권의 筆寫本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장대창이 원본을 밤낮으로 넓게 연구해서 유창하게 외워 기록한 것으로 원본이 불탄 이후 回顧하여 책을 만들었다. 또 다른 하나는 장대창의 제자가 원본을 필사하여 기록한 것이다. 2종의 책은 대략적인 오차가 있는데 전자는 기억의 착오가 있거나, 후자는 과장하여 묘사하거나 함부로 고친 부분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개의 필사본을 서로 참고하여 검증한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의 『敦煌醫藥文獻輯校』를 底本으로 삼았다.⁹⁾

원본이 존재하는 시기에 장대창은 일찍이 北京中醫研究院에 卷子本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 1) 王淑民. 敦煌石窟秘藏醫方. 北京. 北京醫科大學中國協和醫科大學聯合出版社. 1999. p.26. “弘景曰, 陽旦者, 升陽之方, 黃芪爲主. 陰旦者, 扶陰之方, 以柴胡爲主. 靑龍者, 宣發之方, 以麻黃爲主. 白虎者, 收重之方, 以石膏爲主. 朱鳥者, 清滋之方, 以鷄子黃爲主. 玄武者, 溫滲之方, 以附子爲主. 此六方者, 爲六合之正精, 升降陰陽, 交互金木, 既濟水火, 乃神明之劑也. 張機撰『傷寒論』, 僻道家之稱, 故其方皆非正名也, 但以某藥名之, 以推主爲識耳.”
- 2) 박종현, 박시덕, 신상우. 돈황본 상한론 중 보행결장부용약법요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회연구논문집. 2007. 13(1).
- 3) 王淑民. 輔行訣臟腑用藥法要與湯液經法、傷寒雜病論三書方劑關係的探討. 中醫雜誌. 1998. 39(11).
- 4) 宋春光. 輔行訣臟腑用藥法要研究述評. 江西中醫學院學報. 2007. 19(4).
- 5) 張農, 劉強. 敦煌本輔行訣臟腑用藥法要古醫方的源流. 敦煌研究. 2002. 6.
- 6) 張永文, 郭郡浩, 蔡輝. 敦煌遺書輔行訣臟腑用藥法要. 安徽中醫學院學報. 2003. 22(3).
- 7) 張永文. 以敦煌遺書法要探討張仲景經方之源. 中醫基礎醫學雜誌. 2002. 8(3).
- 8) 韓鑫冰, 顏新. 輔行訣臟腑用藥法要中的二旦、四神湯組方原理探析. 遼寧中醫雜誌. 2010. 37(增刊).

- 9)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지만, 애석하게도 이 자료를 중시하지 않아 ‘문화혁명’의 제약을 피하지 못하였다.

1974년 봄에 장씨는 ‘赤脚醫生’의 이름을 사용하여 중국중의연구원에 필사본을 주었다. 그 다음 제2차 抄稿를 기증하여 이후 이 필사본은 馬繼興 선생의 손에 들어가 고찰되고 검증된 결과, 필사본은 인용된 古代의 諱字、藥名、藥量、人名、方名、書名、篇名、病證名稱、方劑配伍、文章構造와 風格 등 다양한 내용의 담고 있는데, 이는 확실하게 현대인의 모조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의 감정 확인 작업은 王雪菴의 지지와 관심을 얻어 책의 내용이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

첫째, 원본 두루마리는 1900년부터 敦煌石室 발굴 후 유전된 刻적으로, 장대창의 기억을 근거로 도굴된 문물 가운데 대항히 다시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河北省 威縣에 있는 장악남의 집안에서 돈황의 책자들이 출토된 소문을 듣고 駐洞道士가 『보행결』을 사들였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으로 完整하며 그 전에 三皇、四神과 二十八宿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진귀한 것으로 여겼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손자 장대창으로 전해졌다. 장대창은 여러 번 이 책의 방약을 입상에 사용하여 모두 효과를 얻었고 제자들에게 전해주어 2종의 복사본으로 베껴 적었다.

둘째, 원본의 내용 가운데 오래 전에 이미 실전된 대량의 의학교적의 내용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예로 『桐君藥錄』과 『湯液經法』 등이 있다. 서명 앞에 『보행결』이라고 붙인 것은 의약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몸을 닦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보건의 보조 수단의 보조라고 여겼다. 고대의 方技書、兵書、道書의 書名에 ‘訣’자가 붙은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陶弘景 저작의 『藥總訣』, 『黃庭集訣』 등이 전형적인 例證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제목에는 ‘梁華陽隱居陶弘景撰’이라 적혀 있는데, 책의 校注를 살펴보면 이미 후세 사람이 정리한 ‘玄武湯’이 모두 ‘眞武湯’으로 고쳐지기에 이전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宋의 避諱를 하지 않은 것으로, 宋代 이전에 정리된 책임을 반증하

고 있다.

후대에 와서 『보행결』은 두 번의 整理·校訂 과정을 거쳐 발행되었는데, 제1차 정리본은 1988년 『敦煌古醫籍考釋』¹⁰⁾에서, 제2차 정리본은 1998년 『敦煌醫藥文獻輯校』¹¹⁾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제1차와 제2차 정리본은 일부 글자가 조금씩 다른 것 외에도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제2차 정리본에는 ‘小勾陳湯’、‘大勾陳湯’、‘小騰蛇湯’、‘大騰蛇湯’이 증보되어 있다.¹²⁾

(2) 개요

敦煌遺書 가운데 醫經類 저작은 모두 4種 8部가 있으며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두루마리 책자는 그 편호가 ‘P’이며, 영국 런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두루마리 책자의 편호는 ‘S’이다.¹³⁾

그러나 『보행결』 1부는 편호가 없다. 全書는 360여행, 약 9,000자로 되어 있으며 敦煌中醫藥醫經類의 저작 가운데 대표적인 저작일 뿐 아니라 학술 가치가 높다. 또한 지금까지도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중국중의연구원의 王淑民은 사용된 구절과 諱避 등 古文獻學의 특징을 근거하여 그 成書年代가 빠르면 南北朝¹⁴⁾ 시대이며, 책 속에 이미 오래전에 실전된 서적인 『湯液經法』, 『桐君藥錄』 등의 상고 시대 醫籍의 내용이 다량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보행결』과 『상한론』 방제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이 둘은 밀접한 傳承 淵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皇甫謐의 『甲乙經·序』에서 “仲景論廣伊尹湯液”¹⁵⁾의 증거가 되었다.

10) 馬繼興 主編. 敦煌古醫籍考釋. 江西.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8. pp.115-137.

11)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p.169-206.

12) 張大昌, 錢超塵 主編. 輔行訣臟腑用藥法要傳承集. 北京. 學苑出版社. 2010. p.38.

13) 王淑民. 敦煌石室秘藏醫方. 北京. 北京醫科大學中國協和醫科大學聯合出版社. 1999. p.1. “P’는 프랑스 伯希和(Paul Pelliot)의 간칭이며, ‘S’는 영국의 斯坦因(Marc Aurel Stein)의 간칭이다.”

14) 王淑民. 敦煌卷子輔行訣臟腑用藥法要考. 甘肅中醫學院學報. 1990. 7(4). pp.15-17.

15) 晉·皇甫謐 著. 張燦理, 徐國仟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

또한 錢超塵은 ‘仲景論廣『伊尹湯液』考’¹⁶⁾의 논문에서 지금의 『보행결』이 기본적으로 南北朝 시기의 의학 저작임을 확실하게 밝히었다.

2) 『湯液經法』에 관한 기록

남북조대의 梁陶弘景의 『보행결』에는 “伊尹이 『湯液經』을 편찬하였고”¹⁷⁾、“장중경은 『湯液經法』을 스승으로 본 받았다”¹⁸⁾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晉의 皇甫密과 일치한다.

『탕액경법』은 西漢 이전의 문헌에서는 기록을 볼 수 없는데, 『탕액경법』에 관한 최초 기록은 『漢書·藝文志』에서 “湯液經法三十二卷”¹⁹⁾라 하여 作者에 관한 기록은 없다. 『漢書』經方類는 모두 11部이며 書名에 ‘黃帝’, ‘扁鵲’ 등 고대의 전설적인 醫聖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곤 모두 作者名에 관한 기록이 없다. 이것은 아마 『淮南鴻烈解』에 나오는 “世俗之人, 多尊古而賤今, 故爲道者, 必托以神農、黃帝而後能入說”²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 시기의 풍조였다. 어쩌면 『神農本草經』과 『黃帝內經』은 ‘신농’과 ‘황제’의 명성을 빌려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이다. 『漢書』는 東漢의 班固가 편찬한 것으로 언급된 역사적 사실은 모두 西漢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였다. 이로 보아 『탕액경법』은 成書의 하한선은 西漢末年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아직 伊尹의 著作이라고 언급된 것이 없다. 『탕액경법』과 伊尹의 연관은 晉·皇甫謐의 『鍼灸甲乙經』의 「序文」에서 처음 나오는데 “이윤은 亞聖의 재능으로 『神

農本草』을 편찬하여 『湯液』으로 사용하였다.”²¹⁾고 하였다.

황보밀의 말에 근거를 두고 伊尹이 『탕액경법』을 편찬했다고 여기고 있는데²²⁾, 『침구잡을경』의 “장중경은 伊尹의 『탕액경법』을 확충한 論술인 십 수 권은 질병을 치료함에 사용하면 효능이 많다.”²³⁾는 문장을 분석해보면, 황보밀은 『탕액경법』과 『상한잡병론』을 모두 볼 수 있었으며 두 가지 서적을 비교하여 장중경이 『탕액경법』의 이론을 넓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밖에 『보행결』에는 『탕액경법』의 數十首의 방제의 기록이 있으며, 기록된 방제와 『상한론』을 비교해보면 서로 같거나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황보밀이 「서문」에서 말했듯 전설에 억지로 갖다 붙여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高承 역시 『事物紀原』에서 “『湯液經』은 商의 伊尹에서 나왔다”²⁴⁾고 단정하였으며, 南宋 王應麟은 『漢藝文志攷證』 “湯液經法三十二卷”에서 『사물기원』과 황보밀의 말을 인용하고, 아울러 『素問湯液醪醴論』篇과 『漢書·郊祀志』의 王莽의 湯液 記事를 언급하였다.²⁵⁾

또한 王好古는 『湯液本草·序』와 『陰證略例』의 『伊尹湯液論例』에서 같은 견해를 보인다. 그는 神農의 『本草』를 근거로 하여 殷의 伊尹이 『湯液論』을 지었고 張仲景이 그것을 擴充하여 10卷의 책으로 되었다고 하고, “장중경의 방제는 모두 湯액이다”²⁶⁾고 하였으며, “이는 醫家의 正學으로서 후세에 어떤 明

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7.

16) 錢超塵. 仲景論廣伊尹湯液考. 江西中醫學院學報. 2003. 15(2). pp.26-29.

17)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5. “商有聖相伊尹, 撰『湯液經』三卷”

18)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3. “咸師式此『湯液經法』”

19) 班固 撰. 漢書·卷三十.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中國基本古籍考[CD-ROM]. 北京. 黃山書社. 2006. p.5 35.

20) 劉安 撰. 淮南鴻烈解·卷第十九.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中國基本古籍考[CD-ROM]. 北京. 黃山書社. 2006. p.241.

21) 晉·皇甫謐 著.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6. “伊尹以亞聖之才, 撰用『神農本草』以爲『湯液』”

22) 徐春霖. 論伊尹湯液. 中華醫史雜誌. 1984. 14(3). p.15 0.

23) 晉·皇甫謐 著.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7. “仲景論廣伊尹『湯液』爲十數卷, 用之多驗”

24) 高承 撰. 事物紀原·卷七.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中國基本古籍考[CD-ROM]. 北京. 黃山書社. 2006. p.169.

25)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3-5.

26) 王好古. 陰證略例·伊尹湯液論例. 中國醫學大成·卷3. 長沙. 岳麓書社. 1992. pp.994-995.

참이 만들더라도 모두 이를 벗어나지 못한다.”²⁷⁾라고 하였다.

『탕액경법』은 漢代부터 南北朝까지 유전되어 왔으며, 황보밀과 『보행결』의 작자는 당시에 역시 이 책을 보았을 것이다. 이후의 『隋書·經籍志』와 『舊唐書·經籍志』에는 모두 『탕액경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唐·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 卷9에 ‘陰旦湯’²⁸⁾의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보행결』의 ‘小陰旦湯’과 대체로 같으며 단지 ‘桂心 4냥’이 더 많이 쓰였고, ‘陽旦湯’은 『보행결』의 ‘小陽旦湯’과 대체로 같지만 모두가 『탕액경법』에서 인용된 것은 아니다.

唐·王燾의 『外臺秘要』 卷2에는 唐·甄立言의 『古今錄驗』을 인용한 ‘陽旦湯’²⁹⁾의 기록이 있는데, 『보행결』과 비교하여 ‘小陽旦湯’은 黃芩 한 가지 약물이 더 나오고 主治는 전부 같다.

원문에는 “虛勞하여 裏急한 경우는 정양단탕으로 다스리며, 2되를 달여서 膠飴 반 되를 넣고 나누어 2번 복용한다.”³⁰⁾고 하였는데, 이는 『보행결』의 ‘小陽旦湯’ 끝에 기재된 “만약 옛 1되를 넣으면 정양단탕이 된다.”³¹⁾고 한 내용과 비슷하다.

손사막은 약 652년에 『친금요방』을 완성하였고, 왕도는 752년에 『외대비요』를 완성하였다. 이 두 名醫는 책을 편찬할 당시 의서를 두루 섭렵하여 박식하였지만, 두 사람 모두 『탕액경법』을 언급하지 않은 걸 보면 아마 이 시기에 실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행결』이 발굴되기 전에는 『탕액경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보행결』을 통해 『탕액경법』의 대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탕액경법』은 上中下 三品

으로 나뉘며, 上品上藥은 음식으로 복용할 수 있는 補益方 120首, 中品中藥은 祛邪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醫方 120首, 下品下藥은 殺蟲辟邪癰疽 등의 방제 또한 120首, 도합 360首의 醫方으로 구성되어 있다.³²⁾

3) 『상한잡병론』과 『보행결』의 방제는 『탕액경법』을 근원으로 삼음

황보밀은 “장증경은 이윤의 『탕액경법』을 확충한 논술인 십 수권을 만들었다.”³³⁾고 하였지만, 전해진 早期의 醫著에서는 『탕액경법』이 散失되어 내용을 볼 수 없었기에 의혹은 늘어났다. 돈황유서인 『보행결』³⁴⁾의 발견으로 이를 연구하여 『보행결』에 기술된 방제가 『탕액경법』에 수록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보행결』의 문헌을 근거로 중요한 세 부분을 말할 수 있다.

첫째, “도홍경이 말하길 모든 勞損病을 구제하는 經方이 있는데 이 또한 5首가 있다. 그 요점을 종합하여 보면 대개 虛候方의 가감일 뿐이다. 사람의 眞氣를 수양하고 보좌하는 기록을 드러내어, 생명을 위협에서 구제하였다. 그 방제는 의미가 심오하여 俗淺이 알 수 있는바가 아니다. 損候와 臟腑의 偏盛과 虛實의 雜錯과 藥性의 한열에 竝行하고 補瀉를 서로 참고하면, 전대의 성현께서 남기신 오묘한 뜻을 근거하여 대중에게 뜻을 드러내었다. 漢晉 시대 이후 여러 名醫의 무리, 張機, 衛汜, 華元化, 吳普, 皇甫玄晏, 支法師, 葛稚川, 範將軍 등은 모두 당대의 이름난 賢人들인데 모두 『탕액경법』을 스승으로 본받아 질병의 고통을 연민으로 구하고 중생들

27) 王好古. 湯液本草序. 中國醫學大成續編卷3. 長沙. 岳麓書社. 1992. p.178.

2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卷九.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181.

29) 王燾撰. 高文鑄校注. 外臺秘要·卷二.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1.

30) 王燾撰. 高文鑄校注. 外臺秘要·卷二.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1. “虛勞裏急者, 正陽旦主之, 煮得二升, 內膠飴半升, 分爲再服.”

31)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8. “若加飴一升, 爲正陽旦湯.”

32)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5. “陶隱居云: 依『神農本草經』及『桐君采藥錄』, 上中下三品之藥, 凡三百六十五味, 以應周天之度, 四時八節之氣. 商有聖相伊尹, 撰『湯液經法』三卷, 爲方, 亦三百六十首: 上品上藥, 爲服食補益方者百二十首; 中品中藥, 爲療疾祛邪之方, 亦百二十首, 下品毒藥, 爲殺蟲辟邪之方, 亦百二十首. 凡共三百六十首也.”

33) 晉·皇甫謐著. 張樑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7. “仲景論一伊尹『湯液』爲十數卷”

34) 馬繼興 主編. 敦煌古醫籍考釋. 江西.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8. p.115.

에게 복을 지었다. 그 사이 增減되어 비록 다른 것을 천단하고 혹은 새로운 효과에 이르기에도 하여 舊經을 어지럽히는 것 같지만 그 취지는 여전히 方圓의 規矩이다.”³⁵⁾으로 이 단락을 분석해보면 “모두 『탕액경법』을 스승으로 본 받아”³⁶⁾의 좁은 의미는 아래의 문장으로 나오는 5首의 「救諸勞損方」을 가리키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보행결』에 인용된 『탕액경법』의 醫方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의사들이 단지 5首의 「救諸勞損方」만을 스승으로 본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陶隱居가 말하길 商나라의 宰相인 伊尹은 『신농본경』과 『동군채약록』에 의거하여 『탕액경』 3권을 편찬하였는데 上、中、下 三品の 藥이 있어 모두 365味로 周天의 度와 4時 8節의 氣에 응한다. 그곳에는 360首의 방제가 실려 있다. 上品인 上藥은 飲食으로 먹을 수 있는 補益의 방제로 120首이고, 中品인 中藥은 疾病을 治療하고 邪氣를 몰아내는 방제로 역시 120首이고, 下品은 毒藥으로 殺蟲하고 악귀를 물리치는 방제로 또한 120首로 모두 360首이다. 실로 만대 의가의 規범이고 蒼生護命의 大寶이다. 지금 흔히 사용되는 60首를 조사하여 기록하는데, 산중에서 질병에 걸리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는 용도로 갖추어 놓은 것일 뿐이다. 모든 약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經方의 뜻과 잘 맞는다. 經에서 말하길 ‘하늘은 象을 이루고 땅은 形을 이루니 하늘에는 五氣가 있고 五味를 化生하며 五味의 變化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다. 지금 대략 25種을 배열하니 五行이 서로 내포하고 있는 흔적을 밝히고 五味 변화의 쓰임을 밝히니 아래와 같다.”³⁷⁾이다.

현재 존재하는 『보행결』의 醫方의 수는 50餘首로, 60首에 조금 모자란다.

셋째, “도홍경이 말하길 外感天行을 다스리는 經方으로 二旦、四神大小 등의 湯이 있다. 옛날 南陽의 張機는 이 諸方에 근거하여 『傷寒論』一部를 편찬하였다.”³⁸⁾로 황보밀의 말을 근거로 “중경이 이윤의 『탕액』을 확충하여 십 수권으로 만들었다.”³⁹⁾고 하였는데, 그러면 여기 “장중경은 여러 방제에 근거하여”⁴⁰⁾에서 ‘여러 방제’란 당연히 『탕액경법』의 방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상 세 단락의 조문을 보면 『보행결』에 기재된 醫方은 『탕액경법』에서 따서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보행결』과 『상한론』의 兩書의 방제를 비교하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행결』 방제와 장중경의 『상한잡병론』의 방제와 비교하면 方名과 主治가 대체로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행결』의 ‘小白虎湯’、‘小玄武湯’과 ‘大靑龍湯’은 『상한론』의 ‘白虎湯’、‘眞武湯’(혹은 ‘玄武湯’)과 ‘小靑龍湯’과 같다. 이와 같이 『보행결』에 기재된 방제들은 『탕액경법』에 등록된 것이므로 『상한잡병론』과 『보행결』의 방제는 모두 『탕액경법』으로 근원이 같은 것이다.

그러나 장중경은 『상한잡병론』의 「서문」에서 말하길 “지나간 날들에 나의 종족이 죽어간 회상에 젖으니, 상한에 손상되어 횡사하거나 요절됨을 구제하지 못하여, 이에 옛 가르침을 구함에 힘쓰고 널리 모든 방제들을 수집하여, 『소문』、『구권』、『팔십일

神農本經』及『桐君采藥錄』, 上中下三品之藥凡三百六十五味, 以應周天之度, 四時八節之氣. 商有聖相伊尹, 撰『湯液經法』三卷, 爲方亦三百六十首: 上品上藥, 爲服食補益方者百二十首; 中品中藥, 爲療疾祛邪之方, 亦百二十首, 下品毒藥, 爲殺蟲辟邪之方, 亦百二十首. 凡共三百六十首也. 實萬代醫家之規範, 蒼生護命之大寶也. 今檢錄常情需用者六十首, 備山中預防災疾之用耳.”

35)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3. “陶云: 經方有救諸勞損病方五首, 然綜觀其意趣, 蓋亦不外虛候方加增減而已. 錄出以備修眞之輔, 拯人之危也. 然其方意深妙, 非俗淺所識. 緣諸損候, 藏氣五乘, 每挾滯實, 藥味寒熱并行, 補瀉相參, 先聖遺奧, 出人意表. 漢晉以還, 諸名醫輩, 張機、衛汜、華元化、吳普、皇甫玄晏、支法師、葛稚川、範將軍等, 皆當代名賢, 咸師式此『湯液經法』”
36)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3. “咸師式此『湯液經法』”
37)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5. “陶隱居云: 依『

38)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7. “隱居曰: “外感天行, 經方之治, 有二旦、四神大小等湯. 昔南陽張機, 依此諸方, 撰爲『傷寒論』一部”
39) 晉·皇甫謐 著.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7. “仲景論一伊尹『湯液』爲十數卷”
40)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7. “張機, 依此諸方”

난』, 『음양대론』, 『태려약록』과 『평맥변증』을 편집하여 『상한잡병론』 16권을 편찬하였다.”⁴¹⁾라 하여 『상한잡병론』의 의학이론이 「서문」에서 기재된 의서들을 답습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방제는 어떤 종류의 저작을 답습한 것인지 상세하게 논술되어 있지 않다. 그는 단지 ‘博采衆方’이라 하였는데 이는 당시 黃巾賊의 難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道教를 배척한 시대적 상황에서 朝廷의 관리로 임명된 그가, 그의 저서에 道家적인 색채를 띤 『탕액경법』을 인용하여 서술하거나 또는 도가의 方名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불가능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藥名을 대신하여 方名으로 정했던 사회적인 풍조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²⁾

2. 『보행결』 방제 18首와 『상한론』 방제의 비교

1) 方劑구성과 主治는 같지만 方名이 다른 경우

『보행결』에서 몇몇 古醫方은 그 名稱이 『상한론』, 『금궤요략』과 다르지만 方劑의 用藥과 主治는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小補心湯’

『보행결』에서는 “小補心湯은 胸痺으로 눕지 못하고, 心痛彻背하거나 背痛彻心한 경우를 다스리는 방제이다. 방제는 枳實(1개, 쪼은 것), 海椒은 8냥, 半夏(반 근, 매끄러운 부분이 없을 때까지 씻은 것)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3미를 흰 식초 1말에 넣고 달여서 4되가 되면, 하루에 2번 1되씩 따뜻하게 복용한다.”⁴⁴⁾고 하였다.

『금궤요략』의 ‘栝蒌薤白半夏湯’의 원문은 “胸痺, 不得臥, 心痛彻背者, 栝蒌薤白半夏湯主之.”⁴⁵⁾로 두 방제의 증상은 기본적으로 같고 약물 또한 동일하다. 다만 煎煮의 방법에 있어 ‘소사심탕’은 白漿(白漿)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식초(米醋)에 약을 끓인 것이고, ‘과루해백만하탕’은 술(白酒)에 藥을 달인다. 米醋는 酸味로 酸味는 心氣를 수렴하여 痰涎宜痹하고 通達胸陽의 효능이 있고, 白酒는 익은 곡물을 사용한 것으로 胸中을 上通하며 藥력을 도와 上通下達하고 通行血脈하는 효능이 있다. 양자의 목적은 모두 通胸陽과 止痹痛에 있으니 역시 두 방제가 같다고 인식할 수 있다.

(2) ‘大補心湯’

『보행결』에서 “大補心湯은 胸痺, 心中이 痞滿하고, 가슴에 氣結이 생기고, 때때로 脇下가 逆하여 搶心이 나타나며, 心痛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를 다스리는 방제이다. 방제는 枳實(1개, 쪼은 것), 海椒(8냥), 半夏(반 근, 매끄럽게 씻은 것), 枳實(볶은 것), 厚朴(구운 것) 각 2냥, 枳實(1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6미를 식초 1말에 넣고 달여서 4되가 되면, 매일 하루 2번 2되를 복용 한다.”⁴⁶⁾고 하였다.

이 方證은 역시 『금궤요략』의 ‘枳實薤白桂枝湯’의 주치와 상합된다. ‘대보심탕’은 ‘胸痺, 心中痞滿’이 있고 ‘지실해백계지탕’은 ‘胸痺, 心中痞’가 있다. ‘대보심탕’은 ‘氣結在胸, 時自膺下逆搶心’이 있고 ‘지실해백계지탕’은 ‘留氣結在胸, 膺下逆搶心’이 있다. 方藥에 있어 ‘대보심탕’은 ‘지실해백계지탕’과 비교했을 때 반하 1미가 더 많고 지실, 후박은 ‘지실해백계지탕’과 비교하여 더 적게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대보심탕’에서 지실과 후박이 부족한 것을 반하를 추가하여 平逆、散胸中之氣結하였으니,

取四升, 溫服一升, 日再服.”

41) 魏荔彤 撰. 傷寒論本義·卷首.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中國基本古籍考[CD-ROM]. 北京. 黃山書社. 2006. p.1. “感往昔之論喪, 傷橫夭之莫救, 乃勤求古訓, 博采衆方, 撰用『素問』、『九卷』、『八十一難』、『陰陽大論』、『胎產藥錄』并『平脈辨證』, 爲『傷寒雜病論』合十六卷.”

42) 王淑民. 輔行訣臟腑用藥法要與湯液經法、傷寒雜病論三書方劑關係的探討. 中醫雜誌. 1998. 39(11). p.696.

43) 張儂, 劉強. 敦煌本輔行訣臟腑用藥法要古醫方的源流. 敦煌研究. 2002. 6. p.65.

44)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74. “小補心湯, 治胸痺不得臥, 心痛彻背, 背痛彻心者方. 栝蒌(一枚, 搗), 薤白(八兩), 半夏(半斤, 洗去滑). 右三味, 以白截漿一斗, 煮

45) 漢·張仲景 述. 晉·王叔和 集. 金匱要略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8.

46)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p.184-185. “大補心湯, 治胸痺, 心中痞滿, 氣結在胸, 時從膺下逆搶心, 心痛無奈方. 枳實(一枚, 搗), 薤白(八兩), 半夏(半升, 洗去滑), 枳實(熬), 厚朴(炙) 各二兩, 桂枝(一兩). 右六味, 以白截漿一斗, 煮取四升, 每服二升, 日再.”

결국 開鬱化滯、行氣降逆의 주치 작용에는 영향이 없다.

(3) '小瀉脾湯'

『보행결』에서 “小瀉脾湯은 脾氣가 實하여 下利清穀하며 裏寒外熱하여 腹冷하며 脈微한 경우를 다스리는 방제이다. 방제는 부자 1개(구운 것)하며, 건강과 감초(볶은 것)는 각각 3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3미를 물 3되로 달여서 1되가 되면 한꺼번에 복용한다.”⁴⁷⁾이라 하였다.

이와 『傷寒論』의 『通脈』四逆湯은 주치와 방약이 일치한다. (‘통맥’)사역탕 증상은 ‘下利清穀’、‘裏寒外熱’、‘脈微欲絕’이 있으며, 이러한 것은 ‘小瀉脾湯’ 증상의 원문에서 모두 찾을 수 있으며 또한 2가지 방제의 약물 구성 역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단지 ‘(통맥)사역탕’은 감초 1냥을 적게 사용하였지만 主治는 같다. 2가지 방제 모두 陰盛於裏하여 脾陽이 衰微한 陰盛格陽의 眞寒假熱證을 다스린다.

(4) '小陽旦湯'

『보행결』의 ‘小陽旦湯’은 “小陽旦湯은 天行發熱로 인하여, 自汗이 出하고 惡風하며 口가 막히고 乾嘔가 있는 경우를 다스린다. 방제는 계지 3냥, 작약 2냥, 생강 2냥(썬 것), 감초(구운 것) 2냥, 대추 12알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5미를 물 7되로 달여서 3되가 되면 1되를 따뜻하게 복용한다.”⁴⁸⁾고 하였다.

이는 『상한론』의 ‘桂枝湯’과 비슷하다. ‘發熱’은 ‘계지탕’에서 ‘熱自發’과 ‘自汗出而惡風’은 ‘계지탕’의 ‘汗自出’、‘漸漸惡風’과 대응하며 두 방제의 證에는 모두 ‘鼻鳴乾嘔’가 있다. 두 방제의 藥味는 같지만 ‘계지탕’에서 생강 1냥을 더 사용하였으며, 두 방제의 복용법 또한 상당히 비슷하다.

‘소양단탕’의 服用法은 “복용 후에 곧 뜨거운 미

음을 한 그릇 먹으면 藥力을 돕는다. 땀이 조금 나야지 줄줄 흐를 정도로 많이 나면 안 되니, 땀은 질병을 더는 것이 아니다. 땀이 나지 않으면 계속 복용하고 병이 나오면 그만 복용한다. 하루 3번 복용한다.”⁴⁹⁾로 ‘계지탕’의 복용법과 매우 비슷한데, ‘계지탕’의 복용법은 “복용하고 나서는 얼른 묽은 미음 1되쯤을 먹어 약의 힘을 돕는다.”、“온몸에 가랑비 젖듯이 땀이 나면 더욱 좋다. 물이 흐르듯이 나게 해서 안 되니, 병이 반드시 낫지 않게 된다.”、“만약 땀이 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복용하며 앞의 복용방법과 같다.”⁵⁰⁾이다. 이로 보아 두 방제의 근원이 같음을 알 수 있다.

(5) '正陽旦湯'

『보행결』에서 ‘正陽旦湯’은 ‘小陽旦湯’의 원문 뒤에 한 구절인 “만약 飴糖을 1되 더하면 正陽旦湯이 된다.”⁵¹⁾고 하였으니, 이는 『상한론』의 ‘小建中湯’과 서로 합치된다.

(6) '小陰旦湯'

『보행결』에서 “小陰旦湯은 天行으로 인하여 身熱汗出하고 頭目痛하며 腹中痛하고 乾嘔下利한 경우를 다스린다. 방제는 황금 3냥, 작약 3냥, 생강 2냥(썬 것), 감초 2냥(구운 것), 대추 12알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5미를 물 7되로 달여서 3되가 되면 따뜻하게 1되를 복용하는데, 하루 3번 복용한다. 탕을 복용하고三四리의 시간이 지나서 환자가 초장(自裁漿)을 한 사발 먹으면 약력을 돕는다. 전신 발열이 없어도 자연히 낫는다.”⁵²⁾라 하였다.

47)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77. “小瀉脾湯, 治脾氣實, 下利清穀, 裏寒外熱, 腹冷, 脈微者方. 附子一枚(炮), 乾薑, 甘草(炙)各三兩. 右三味, 以水三升, 煮取一升, 頓服.”

48)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8. “小陽旦湯, 治天行病, 發熱, 自汗出而惡風, 鼻鳴乾嘔者. 桂枝三兩, 芍藥三兩, 生薑二兩(切), 甘草(炙)二兩, 大棗十二枚. 右五味以水七升, 煮取三升, 溫服一升.”

49)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8. “服已, 卽啜熱粥飯一器, 以助藥力. 稍稍令汗出, 不可令流瀉, 則病不除也. 若不汗出, 可隨服之, 取瘥止. 日三服.”

50) 漢·張仲景 著. 晉·王叔和 撰次. 宋·成無已 注. 明·汪濟川 校.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7. “服已須臾, 啜熱稀粥一升餘, 以助藥力”、“遍身漿漿, 微似有汗者益佳, 不可令如水流瀉, 病必不除”、“若不汗, 更服, 依前法.”

51)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8. “若加飴一升, 爲正陽旦湯.”

52)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8. “小陰旦湯, 治天行病, 身熱汗出, 頭目痛, 腹中痛, 乾嘔下利者. 黃芩三兩, 芍藥三兩, 生薑二兩(切), 甘草二兩(炙), 大棗十二枚.”

이 方證은 『상한론』의 ‘黃芩加半夏生薑湯’과 매우 비슷한데 ‘황금가반하생강탕’은 “태양병과 소양병이 합쳐져서 설사를 하면 황금탕을 쓰고, 구역질을 하면 황금가반하생강탕으로 다스린다.”⁵³⁾이다. ‘小陰旦湯’의 ‘乾嘔, 下利’와 ‘黃芩加半夏生薑湯’의 ‘自下利者’, ‘若嘔者’와 대응하며 方藥 구성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는데 다만 ‘小陰旦湯’이 반하 1미를 적게 사용했을 뿐이다. 두 방제는 모두 痢를 치료하는 方劑으로 ‘小陰旦湯’은 清裏熱, 去外邪하고 ‘黃芩加半夏生薑湯’은 表邪가 不解入裏하여 腸道로 熱移한 것과 外邪로 인한 裏熱를 다스리기에 두 方劑의 病機와 주지가 같으며 方藥 또한 비슷하다.

(7) ‘大陰旦湯’

『보행결』에서 “大陰旦湯은 모든 頭目眩暈의 병에 咽中이 건조하고 매번 헛구역질하길 좋아하며,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心中이 煩滿하며 胸脇支痛하며 寒熱이 왕래하는 경우를 다스리는 방제이다. 방제는 시호 8냥, 인삼, 황금, 생강 각각 3냥, 감초(구운 것) 2냥, 작약 4냥, 대추 12알, 반하 1되(씻은 것)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8미를 물 1말 2되로 달여서 6되가 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시 천천히 달인다. 3되가 되면 따뜻하게 1되를 복용한다. 하루 3번 복용한다.”⁵⁴⁾고 하였다.

그 중 ‘每喜乾嘔, 食不下, 心中煩滿’은 『상한론』의 ‘小柴胡湯’의 ‘嘿嘿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胸中滿’과, ‘胸脇苦滿, 往來寒熱’은 ‘小柴胡湯’의 ‘往來寒熱, 胸脇苦滿’과 서로 대응한다. 두 방제에서 藥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같은데 다만 ‘小陰旦湯’에서 작약을 하

나 더 사용하였으며, 두 방제에서 시호는 『보행결』에서는 8냥, 『상한론』에서는 반근을 사용하여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고대의 1斤은 16냥으로 그러면 반근이 8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주치와 방제 역시 같으니 양자는 하나의 방제에서 기원된 것이다.

(8) ‘大陽旦湯’

『보행결』에 기재된 “大陽旦湯은 모든 汗出不止한 病에 호흡이 가빠고 약하며, 身勞하여 無力하고 서늘한 바람을 싫어하고 腹中이 拘急하며 不欲飲食한 경우를 다스리는데 적합한 방제이다. 만약 脈이 虛大하면 증상이 더욱 심한 경우이다. 방제는 황기 5냥, 인삼, 계지, 생강은 각각 3냥, 감초(구운 것) 2냥, 작약 6냥, 대추 12알, 옻 1되로 구성되어 있다.”⁵⁵⁾는 문장은 『금궤요략』의 ‘黃芪建中湯’과 의미가 같다.

‘황기건중탕’은 “虛勞裏急, 諸不足, 黃芪建中湯主之”⁵⁶⁾인데 ‘虛勞’, ‘諸不足’은 ‘대양단탕’에서 말하는 ‘氣息惛憒, 身勞力怯, 惡風涼’이고 ‘裏急’은 ‘대양단탕’에서 말하는 ‘腹中拘急’이다. 두 방제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같으며, ‘대양단탕’이 인삼 1미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인삼은 모든 虛勞損을 補하는 上品의 藥물로 여기에서 적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대양단탕’의 주치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두 방제의 증상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9) ‘小朱鳥湯’

『보행결』의 “小朱鳥湯은 天行熱病으로 心氣가 不足하여 내부에서 煩熱이 생기고, 앉거나 눕기가 불안하며 때로는 답이나 오리 간과 같은 純血의 대변을 보는 경우를 다스리는 방제이다. 방제는 계자황 2개, 아교 3정, 황련 4냥, 황금, 작약 각각 2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5미를 물 6되에 먼저 황련, 황금, 작약의 3가지 藥을 넣고 끓이다 3되가 되면 찌

右五味以水七升, 煮取三升, 溫服一升, 日三服. 服湯已, 如人行三四里頃(時), 令病人啜白糝一器, 以助藥力. 身熱去, 利自止也.”

53) 漢·張仲景 著. 晉·王叔和 撰次. 宋·成無己 注. 明·汪濟川 校.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21. “太陽與少陽合病, 自下利者, 與黃芩湯, 若嘔者, 黃芩加半夏生薑湯主之.”

54)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9. “大陰旦湯, 治凡病頭目眩暈(運), 咽中乾, 每喜乾嘔, 食不下, 心中煩滿, 胸脇支痛, 往來寒熱者方. 柴胡八兩, 人蔘, 黃芩, 生薑各三兩, 甘草(炙)二兩, 芍藥四兩, 大棗十二枚, 半夏一升(洗). 右八味, 以水一斗二升, 煮取六升, 去滓. 重上火, 緩緩煎之, 取得三升, 溫服一升, 日三服.”

55)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8. “大陽旦湯, 治凡病汗出不止, 氣息惛憒, 身勞無力, 每惡風涼, 腹中拘急, 不欲飲食, 皆宜此方. 若脈虛大者, 爲更切證也. 黃芪五兩, 人蔘, 桂枝, 生薑各三兩, 甘草(炙)二兩, 芍藥六兩, 大棗十二枚, 飴一升.”

56) 漢·張仲景 述. 晉·王叔和 集. 金匱要略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0.

【도표 1】 方劑구성과 主治는 같지만 方名이 다른 경우

| 『보행걸』 | 주치 | 구성 | 『상한론』 | 『금궤요략』 |
|----------------|--|--|--------------|-------------|
| 小補心湯 (心臟病證) | 治胸痺不得臥, 心痛徹背, 背痛徹心者方. | 栝蒌(一枚, 搗), 薤白(八兩), 半夏(半斤, 洗去滑). | | |
| | 胸痺, 不得臥, 心痛徹背者. | 栝蒌實(一枚, 搗), 薤白(三兩), 半夏(半斤), 白酒. | | 栝蒌薤白半 夏湯 |
| 大補心湯 | 治胸痺, 心中痞滿, 氣結在胸, 時從脇下逆搶心, 心痛無奈方. | 栝蒌(一枚搗), 薤白(八兩), 半夏(半升, 洗去滑), 枳實(熬), 厚朴(炙) 各二兩, 桂枝(一兩). | | |
| | 胸痺, 心中痞滿, 氣結在胸, 胸滿, 脇下逆搶心. | 枳實(四枚), 厚朴(四兩), 薤白(半斤), 桂枝(一兩), 栝蒌實(一枚, 搗) | | 枳實薤白桂 枝湯 |
| 小瀉脾湯 | 治脾氣實, 下利清穀, 裏寒外熱, 腹冷, 脈微者方. | 附子一枚(炮), 乾薑, 甘草(炙) 各三兩. | | |
| | 少陰病, 下利清谷, 裏寒外熱, 手足厥逆, 脈微欲絕, 身反不惡寒, 其人面赤色, 或腹痛, 或乾嘔, 或咽痛, 或利止, 脈不出者. | 甘草(二兩, 炙), 附子(大者 一枚), 乾薑(三兩). | (通脈)四逆 湯 | |
| 小陽旦湯 | 治天行病, 發熱, 自汗出而惡風, 鼻鳴乾嘔者. | 桂枝三兩, 芍藥三兩, 生薑二兩(切), 甘草(炙)二兩, 大棗十二枚. | | |
| | 太陽中風, 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 齋齋惡寒, 淅淅惡風, 翕翕發熱, 鼻鳴乾嘔者. | 桂枝(三兩, 去皮), 芍藥三兩, 甘草二兩(炙),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 擘). | 桂枝湯 | |
| 正陽旦湯 | 治天行, 發熱, 自汗出而惡風, 鼻鳴乾嘔者.(小陽旦湯斗 相同) | 桂枝三兩, 芍藥三兩, 生薑二兩(切), 甘草(炙)二兩, 大棗十二枚, 飴一升. | | |
| | 傷寒二三日, 心中悸而煩者, 小建中湯主之. | 桂枝(三兩), 甘草三兩(炙), 大棗十二枚, 芍藥六兩, 生薑三兩(切), 膠飴一升. | 小建中湯 | |
| 小陰旦湯 | 治天行病, 身熱汗出, 頭目痛, 腹中痛, 乾嘔下利者. | 黃芩三兩, 芍藥三兩, 生薑二兩(切), 甘草二兩(炙), 大棗十二枚. | | |
| | 太陽與少陽合病, 自下利者, 與黃芩湯, 若嘔者. | 黃芩三兩, 甘草二兩(炙), 生薑二兩(切), 大棗十二枚, 半夏半升, 生薑三兩. | 黃芩加半夏 生薑湯 | |

| | | | | |
|------|---|--|-------|-------|
| 大陰旦湯 | 治凡病頭目眩暈(運), 咽中乾, 每喜乾嘔, 食不下, 心中煩滿, 胸脇支痛, 往來寒熱者方. | 柴胡八兩, 人蔘、黃芩、生薑各三兩, 甘草(炙)二兩, 芍藥四兩, 大棗十二枚, 半夏一升(洗). | | |
| | 傷寒五六日, 中風,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胸中煩而不嘔, 或不渴, 身有微熱, 或咳者. | 柴胡(半斤), 黃芩(三兩), 人蔘(三兩), 甘草(三兩), 半夏(半升, 洗), 生薑(三兩, 切), 大棗(十三枚, 擘). | 小柴胡湯 | |
| 大陽旦湯 | 治凡病汗出不止, 氣息惛惛, 身勞無力, 每惡風涼, 腹中拘急, 不欲飲食, 皆宜此方. 若脈虛大者, 爲更切證也. | 黃芪五兩, 人蔘、桂枝、生薑各三兩, 甘草(炙)二兩, 芍藥六兩, 大棗十二枚, 飴一升. | | |
| | 虛勞裏急, 諸不足. | 桂枝(三兩), 甘草三兩(炙), 大棗十二枚, 芍藥六兩, 生薑三兩(切), 膠飴一升, 黃芪一兩半 | | 黃芪建中湯 |
| 小朱烏湯 | 治天行熱病, 心氣不足, 內生煩熱, 坐臥不安, 時下利純血如雞鴨肝者方. | 雞子黃二枚, 阿膠三錠, 黃連四兩, 黃芩、芍藥各二兩. | | |
| | 少陰病, 得之二三日以上, 心中煩, 不得臥. | 黃連(四兩), 黃芩(一兩), 芍藥(二兩), 雞子黃(二枚), 阿膠(三兩). | 黃連阿膠湯 | |

꺼기를 제거한다. 아교를 넣고 다시 끓이다 녹으면 불을 끄고 내버려뒀다 약간 식기를 기다리다 계자황을 넣고 서로 섞이게 저어준다. 따뜻하게 7홉을 하루 3번 복용한다.”⁵⁷⁾은 이 문장은 『상한론』에서의 ‘黃連阿膠湯’과 매우 비슷하다.

‘小朱烏湯’에는 ‘心氣不足, 內生煩熱’이 있고 ‘황련아교탕’에는 ‘心中煩’이 있다. ‘소주오탕’에는 ‘坐臥不安’이 있고 ‘황련아교탕’에는 ‘不得臥’가 있다. 두 방제의 약물 구성은 서로 같으며 복용법 또한 비슷하다. ‘황련아교탕’의 복용법은 “5가지 약물을 물 5되에 먼저 3가지를 넣고 달이는데 2되가 되면 찌꺼기

를 걸러내고 아교를 넣고 다 녹여서 조금 식힌 다음, 계란 노른자를 넣고 저어서 잘 섞이도록 해서 7홉씩 따뜻하게 먹는데, 하루 3번 복용한다.”⁵⁸⁾로, 양자는 숫자가 조금 다를 뿐 나머지는 모두 같다.

2) 방제 구성은 같지만 주치와 방제명이 다른 경우

이러한 종류의 方證과 『상한론』을 비교하여 보면 主治는 다르나 病機는 같다.

(1) ‘瀉心湯’

『보행결』의 “瀉心湯은 清下의 誤用을 구제하니 陽氣가 본래 實한 사람이 外邪가 乘虛陷入하여, 心下痞滿하고 食不下하며, 利反不止하며 雷鳴腹痛한

57)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p.190-191. “小朱烏湯, 治天行熱病, 心氣不足, 內生煩熱, 坐臥不安, 時下利純血如雞鴨肝者方. 雞子黃二枚, 阿膠三錠, 黃連四兩, 黃芩、芍藥各二兩. 右五味, 以水六升, 先煮蓮、苓、芍三物, 取三升, 去滓. 內膠, 更上火, 令烊盡, 取下, 待小冷, 下雞子黃, 攪令相得, 溫服七合, 日三服.”

58) 漢·張仲景 著. 晉·王叔和 撰次. 宋·成無已 注. 明·汪濟川 校.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59. “右五味, 以水五升, 先煮三物, 取二升, 去滓, 內膠烊盡, 小冷, 內雞子黃, 攪令相得, 溫服七合, 日三服.”

경우를 다스리는 방제이다. 방제는 황련, 황금, 인삼, 감초(구운 것), 건강(어떤 방제에는 대추가 있음)이 각각 3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5미를 물 7되로 달여서 3되가 되면, 2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⁵⁹⁾라 기재되어 있다.

『상한론』의 ‘乾薑黃連黃芩人蔘湯’과 ‘瀉心湯’의 방제를 비교하면, 方藥은 단지 감초 1미의 차이가 있지만 주치에는 차이가 있다. ‘건강황련황금인삼탕’의 주치는 “상한에 본디 하부에 한기가 있었는데 의사가 다시금 吐下시키면, 한기가 온기를 막아서 더욱 거스르게 되어 토하고 설사하며, 음식은 먹자마자 토하게 되는데 건강황련황금인삼탕으로 다스린다.”⁶⁰⁾이며, ‘사심탕’은 清下藥의 誤用으로 인하여 寒盛於下, 陽格於上하여 ‘上熱下寒’한 경우이며, ‘건강황련황금인삼탕’은 吐法의 誤用으로 인하여 寒格於上하여 ‘上寒下熱’한 경우이다. 비록 寒熱이 위치한 上下가 각각 다르지만, 모두 寒熱相格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두 방제의 약물 사용은 기본적으로 같다. ‘건강황련황금인삼탕’에는 甘草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은 甘草의 性味가 甘溫하기 때문에 吐를 하는 사람은 甘味를 싫어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 ‘建中補脾湯’

『보행결』에 “建中補脾湯은 脾虛하여 肉極하며, 羸瘦함이 마치 柴와 같고, 腹中이 拘急하며 四肢가 無力한 증상을 다스리는 방제이다. 방제는 감초 2냥(구운 것), 대추 12알(씨앗을 제거한 것), 생강 3냥(썬 것), 누런 엿 1되, 작약 6냥, 계지 2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6미를 물 7되로 달여서 3되가 되면 찌꺼기를 제거한다. 엿을 넣고 다시 끓이면서 녹으면 따뜻하게 1되를 복용한다. 하루에 다 먹는다.”⁶¹⁾고 기재되어 있다.

59)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2. “瀉心湯, 救誤用清下, 其人陽氣素實, 外邪乘虛陷入, 致心中痞滿, 食不下, 利反不止, 雷鳴腹痛方. 黃連、黃芩、人蔘、甘草(炙)、乾薑(各三兩, 一方有大棗). 右五味, 以水七升, 煮取三升, 溫分再服.”

60) 漢·張仲景 著. 晉·王叔和 撰次. 宋·成無己 注. 明·汪濟川 校.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77. “傷寒本自寒下, 醫復吐下之, 寒格, 更逆吐下. 若食入口即吐, 乾薑黃連黃芩人蔘湯主之.”

이 방제와 『상한론』의 ‘小建中湯’과 약물 구성은 같지만 ‘소건중탕’의 주치는 “상한 2-3일째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답답한 경우에는 소건중탕으로 다스린다.”⁶²⁾이다. ‘건중보비탕’은 脾勞脾虛를 치료하고 表證이 없는데, ‘소건중탕’은 이미 脾胃中氣가 부족하여 復感外邪를 다스린다. 그런 까닭에 ‘소건중탕’에는 계지 1냥을 더 사용하여 表邪를 제거한다. 病機에 있어 ‘건중보비탕’의 주요한 원인은 脾虛이고 ‘소건중탕’은 中氣不足하여 외사가 침입한 것으로 『내경』에서는 “正氣存內, 邪不可干”⁶³⁾、“邪之所湊, 其氣必虛”⁶⁴⁾라 말하고 있는데, 祛邪함으로 扶正하는 것이 ‘소건중탕’의 主旨이다. 두 방제는 모두 補中益氣에 두고 있는데, 질병은 다르지만 病機는 같은 施治에서의 異病同治의 원칙에 부합하고 있다.

(3) ‘小白虎湯’

『보행결』의 “小白虎湯은 天行熱病으로 인하여 大汗出하여 不止하며, 口舌乾燥하며 飲水數升이나 그치지 않고 脈洪大한 경우를 다스리는 방제이다. 방제는 석고를 계란 크기만큼(면주머니에 넣음), 지모 6냥, 감초(구운 것) 2냥, 찹쌀 6홉으로 구성된다. 위의 4미를 먼저 물 1말에 볶은 찹쌀을 넣고 끓이다 익으면 찹쌀을 건진다. 나머지 모든 약을 넣고 달여서 6되가 되면 따뜻하게 2되를 하루 3번 복용한다.”⁶⁵⁾고 하였다.

‘小白虎湯’은 『상한론』의 ‘白虎湯’과 구성과 같다.

61)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4. “建中補脾湯, 治脾虛, 肉極, 羸瘦如柴, 腹中拘急, 四肢無力方. 甘草二兩(炙), 大棗十二枚(去核), 生薑三兩(切), 黃飴一升, 芍藥六兩, 桂枝二兩. 右六味, 以水七升, 煮取三升, 去滓. 內飴, 更上火, 令消已, 溫服一升, 日盡之.”

62) 漢·張仲景 著. 晉·王叔和 撰次. 宋·成無己 注. 明·汪濟川 校.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91. “傷寒二三日, 心中悸而煩者, 小建中湯主之.”

63) 明·張景岳 著. 類經(上). 서울. 대성문화사. 1982. p.255.

64)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436.

65)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90. “小白虎湯, 治天行熱病, 大汗出不止, 口舌乾燥, 飲水數升不已, 脈洪大者方. 石膏如雞子大(綿裹), 知母六兩, 甘草(炙)二兩, 梗米六合. 右四味, 先以水一斗, 熬梗米, 熟訖去米. 內諸藥, 煮取六升, 溫服二升, 日三服.”

‘백호탕’은 “상한에 맥이 浮滑한 경우는 表分에 열이 있고 裏分에 한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백호탕으로 다스린다.”⁶⁶⁾고 하였으니 ‘소백호탕’은 天行熱病을 치료하고 ‘백호탕’은 傷寒外邪가 入裏化熱함을 다스린다. 비록 병은 다르지만 모두 裏熱熾盛으로 인하여, 身大熱、口大渴、汗大出、脈洪大의 陽明四大證이 나타난다. 한의학에는 증상이 같으면 치료 또한 같은 원칙이 있는데, 두 방제가 서로 같은 것은 이러한 이치를 따르는 것이다.

(4) ‘大白虎湯’

『보행결』에서 “大白虎湯은 天行熱病으로 인하여 心中에 煩熱하고 수시로 自汗이 나오며, 舌乾하며 渴欲하여 飲水하고 기침이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경우를 다스리는 방제이다. 방제는 석고를 계란크기 정도 1개(부순 것), 맥문동 반 되, 감초(구운 것) 2냥, 찹쌀 6홉, 반하 반 되, 생강 2냥(썬 것), 죽엽 3손아귀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7미를 물 1말 2되에 먼저 찹쌀을 넣고 끓이다 익으면 찹쌀을 건진다. 나머지 모든 약을 넣고 달여서 6되가 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2되를 하루 3번 복용한다.”⁶⁷⁾고 하였다.

‘大白虎湯’과 『상한론』의 ‘竹葉石膏湯方’은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죽엽석고탕’은 인삼이 있고 반하가 없으며 주치는 같지 않다. ‘죽엽석고탕’은 “상한이 나온 뒤 허약하여 숨을 알게 쉬고, 기운이 치올라와 토할 듯 한 경우”⁶⁸⁾로 이 방제의 주치는 상한이 풀리지 않고 기혈이 회복되지 않음에 있고, ‘대백호탕’의 주치는 天行熱病、陰氣가 久傷되는 惡候에 있다. ‘죽엽석고탕’은 병이 점차 낫는 단계이고, ‘대백호탕’

은 병이 이미 깊어 병이 낫지 않는 경우로 서로 반대이다. 한의학에 있어 ‘辨證施治’함에 어떤 병이나에 관계없이 단지 증상이 같으면 같은 치료방법을 응용할 수 있다. 양자는 모두 陰氣가 耗損되어 不足한 증상이므로 같은 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죽엽석고탕’에는 인삼이 있는데 이것은 ‘죽엽석고탕’이 補虛가 위주이기 때문인데 外邪는 이미 물러난 상태이다. ‘대백호탕’에는 반하가 있는데 이것은 ‘대백호탕’은 아직 心中煩熱이 있기 때문에 補虛의 시기는 邪氣가 물러나고 나서 고려해야 한다.

(5) ‘小玄武湯’

『보행결』의 “小玄武湯은 天行病으로 腎氣가 부족하여 내부에서 虛寒이 생겨, 小便이 不利하며 腹中痛하고 四肢冷한 경우를 다스리는 방제이다. 방제는 복령 3냥, 작약 3냥, 백출 2냥, 건강 3냥, 부자 1개(껍질을 제거하여 볶은 것)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5미를 물 8되로 달여서 3되가 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7홉을 따뜻하게 하루 3번 복용한다.”⁶⁹⁾고 하였다.

‘小玄武湯’과 『상한론』의 ‘眞武湯’은 방약 구성이 기본적으로 같다. 그러나 두 방제의 主治는 차이가 있는데 ‘진무탕’의 주치는 “태양병에 발한시켜서 땀이 나고서도 열이 내리지 않고, 환자가 다시금 열이 나고 명치끝이 두근거리며,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땅에 넘어지려 하는 경우에는 진무탕으로 다스린다.”⁷⁰⁾ “소음병 2-3일째에도 낫지 않으며, 4-5일째에는 배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가지 않으며 팔다리가 무겁고 육신거리며 설사가 나는데, 이는 다 水氣가 있는 것이다. ……; 진무탕으로 다스린다.”⁷¹⁾이다. ‘소현무탕증’은 天行病, 腎氣不足,

66) 漢·張仲景 著·晉·王叔和 撰次·宋·成無已 注·明·汪濟川 校·注解傷寒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4·p.124. “傷寒脈浮滑, 此表有熱, 裏有寒, 白虎湯主之.”

67)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敦煌醫藥文獻輯校·江蘇·江蘇古籍出版社·1998·p.190. “大白虎湯, 治天行熱病, 心中煩熱, 時自汗出, 舌乾, 渴欲飲水, 時嘔嗽不已, 久不解者方. 石膏如雞子大一枚(打), 麥門冬半升, 甘草(炙)二兩, 梗米六合, 半夏半升, 生薑二兩(切), 竹葉三大握. 右七味, 以水一斗二升, 先煮梗米, 米熟訖去米. 內諸藥, 煮至六升, 去滓, 溫服二升, 日三服.”

68) 漢·張仲景 著·晉·王叔和 撰次·宋·成無已 注·明·汪濟川 校·注解傷寒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4·p.189. “傷寒解後, 虛羸少氣, 氣逆欲吐者”

69)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敦煌醫藥文獻輯校·江蘇·江蘇古籍出版社·1998·p.191. “小玄武湯, 治天行病, 腎氣不足, 內生虛寒, 小便不利, 腹中痛, 四肢冷者方. 茯苓三兩, 芍藥三兩, 朮二兩, 乾薑三兩, 附子一枚(炮去皮). 右五味, 以水八升, 煮取三升, 去滓, 溫服七合, 日三服.”

70) 漢·張仲景 著·晉·王叔和 撰次·宋·成無已 注·明·汪濟川 校·注解傷寒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4·p.84. “太陽病發熱, 汗出不解, 其人仍發熱, 心下悸, 頭眩, 身憊動, 振振欲擗地者, 眞武湯主之.”

71) 漢·張仲景 著·晉·王叔和 撰次·宋·成無已 注·明·汪濟川 校·注解傷寒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4·p.164.

【도표 2】 방제 구성은 같지만 주치와 방제명이 다른 경우

| 『보행결』 | 주치 | 구성 | 『상한론』 |
|-------|--|--|-----------|
| 瀉心湯 | 救誤用清下, 其人陽氣素實, 外邪乘虛陷入, 致心下痞滿, 食不下, 利反不止, 雷鳴腹痛方 | 黃連、黃芩、人蔘、甘草(炙)、乾薑(各三兩, 一方有大棗) | |
| | 傷寒本自寒下, 醫復吐下之, 寒格, 更逆吐下. 若食入口即吐. | 乾薑、黃連、黃芩、人蔘(各三兩). | 乾薑黃芩黃連人蔘湯 |
| 建中補脾湯 | 治脾虛, 肉極, 羸瘦如柴, 腹中拘急, 四肢無力方. | 甘草二兩(炙), 大棗十二枚(去核), 生薑三兩(切), 黃飴一升, 芍藥六兩, 桂枝二兩 | |
| | 傷寒二三日, 心中悸而煩者, 小建中湯主之. | 桂枝(三兩), 甘草三兩(炙), 大棗十二枚, 芍藥六兩, 生薑三兩(切), 膠飴一升. | 小建中湯 |
| 小白虎湯 | 治天行熱病, 大汗出不止, 口舌乾燥, 飲水數升不已, 脈洪大者方. | 石膏如雞子大(綿裹), 知母六兩, 甘草(炙)二兩, 粳米六合 | |
| | 傷寒脈浮滑, 此表有熱, 裏有寒. | 知母六兩, 石膏(一斤), 甘草(炙)二兩, 粳米六合. | 白虎湯 |
| 大白虎湯 | 治天行熱病, 心中煩熱, 時自汗出, 舌乾, 渴欲飲水, 時呷嗽不已, 久不解者方. | 石膏如雞子大一枚(打), 麥門冬半升, 甘草(炙)二兩, 粳米六合, 半夏半升, 生薑二兩(切), 竹葉三大握. | |
| | 傷寒解後, 虛羸少氣, 氣逆欲吐者. | 竹葉(二握), 石膏(一斤), 半夏半升, 人蔘三兩, 甘草二兩(炙), 粳米半升, 麥門冬一升. | 竹葉石膏湯 |
| 小玄武湯 | 治天行病, 腎氣不足, 內生虛寒, 小便不利, 腹中痛, 四肢冷者方. | 茯苓三兩, 芍藥三兩, 白朮二兩, 乾薑三兩, 附子一枚(炮去皮). | |
| | 太陽病發熱, 汗出不解, 其人仍發熱, 心下悸, 頭眩, 身瞤動, 振振欲擗地者. 少陰病, 二三日不已, 至四五日, 腹滿, 小便不利, 四肢沉重疼痛, 自下利者, 此為有水氣, 其人或咳, 或小便利, 或下利, 或嘔者. | 茯苓三兩, 芍藥三兩, 乾薑三兩, 白朮二兩, 附子一枚(炮去皮). | 真武湯 |

內氣虛寒이며 ‘진무탕’은 太陽病發汗後 또는 少陰病 나타나는 虛寒有水氣하여 病이 드러나는 것은 다르

지만, 양자 모두 腎陽이 虛하여 水泛하니 寒水가 相搏한 결과이므로 방제가 같다.

“少陰病, 二三日不已, 至四五日, 腹滿, 小便不利, 四肢沉重疼痛, 自下利者, 此為有水氣, …… 真武湯主之.”

3) 방제명은 같으나 방제 구성과 주치가 다른 경우

『보행결』과 『상한론』에는 모두 大、小青龍湯이 있지만 兩者의 內容은 서로 다르니 이를 비교하기로 한다.

(1) ‘小青龍湯’

『보행결』에서의 “小青龍湯은 天行으로 發熱惡寒하며 汗不出而喘하고 身疼痛하며 脈緊을 다스리는 방제이다. 방제는 마황 3냥, 행인 반 되(삶아서 부순 것), 계지 2냥, 감초(구운 것) 1냥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4미를 물 7되에 마황을 먼저 달이는데, 2되로 줄면 위쪽의 거품을 제거한다. 나머지 모든 약을 넣고 달이는데, 3되가 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8홉을 복용한다. 반드시 땀이 나고 몸이 통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사기가 흠어지지 않은 것이다.”⁷²⁾라 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상한론』의 ‘麻黃湯’의 구성과 주치에 해당한다. ‘마황탕’의 “發熱”、“無汗而喘”⁷³⁾은 ‘소청룡탕’의 ‘發熱惡寒、汗不出而喘’과, ‘마황탕’의 “身痛、腰痛、骨節疼痛”⁷⁴⁾은 ‘소청룡탕’의 ‘身疼痛’과 대응한다. 두 방제의 구성은 같고 약물 용량도 서로 비슷하며 복용법도 같다. 그러나 『상한론』의 ‘소청룡탕’은 방약의 구성과 주치를 비롯해 『보행결』의 ‘소청룡탕’과 큰 차이가 있다.

(2) ‘大靑龍湯’

『보행결』에서 “大靑龍湯은 天行病으로 表가 不解하여, 心下에 水氣가 있고 乾嘔하며 發熱하며 喘咳가 그치지 않는 경우를 다스린다. 방제는 마황(마디를 잘라낸 것), 세신, 작약, 감초(구운 것), 계지 각각 3냥, 오미자와 반하가 반근, 건강 3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8미를 물 1말에 마황을 먼저 달

이는데 2되로 줄면 위쪽의 거품을 제거한다. 나머지 모든 약을 넣고 달이는데 3되가 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1되를 복용한다.”⁷⁵⁾고 하였다.

이는 『상한론』의 ‘소청룡탕’ 주치와 같다. ‘소청룡탕’은 “상한의 표증이 풀리지 않고, 명치끝에 水氣가 있어 헛구역질을 하고, 열이 나면서 기침을 하며, 간혹 갈증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목이 메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아랫배가 그득해지거나 숨을 헐떡이는 경우가 있는데, 소청룡탕으로 다스린다.”⁷⁶⁾고 하였는데, 방약의 구성 또한 같다. 그러나 『상한론』의 ‘대청룡탕’은 太陽과 陽明合病이거나 傷寒에 裏熱을 겸비한 증상을 다스리는 방제로 主治와 方藥 모두 다르다. ‘대청룡탕’은 ‘麻杏石甘湯’에 계지, 생강, 대추를 더한 경우로, 두 방제에 몇 가지 공통 약물이 있긴 하지만 主藥과 효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두 방제는 이름 같을 뿐 실제적으로 다르다.

4) 하나의 방제 가운데 여러 방제를 포함한 경우

(1) ‘大玄武湯’

『보행결』에서 “大玄武湯은 腎氣가 虛疲하여, 少腹이 中冷하며 腰背가 沉重하고 四肢가 冷淸하며, 小便이 不利하고 大便이 鴨溏하여 하루에 10번 정도 보아 氣愜하여 힘이 약한 증상을 다스리는 방제이다. 방제는 복령 3냥, 백출 2냥, 부자 1개(구운 것), 작약 2냥, 건강 2냥, 인삼 2냥, 감초 2냥(볶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7미를 물 1말로 달여서 4되가 되면 따뜻하게 1되를 복용한다. 낮에 3번 밤에 1번 복용한다.”⁷⁷⁾고 하였다.

72)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89. “小青龍湯, 治天行, 發熱惡寒, 汗不出而喘, 身疼痛, 脈緊者方. 麻黃三兩, 杏仁半升(熬, 打), 桂枝二兩, 甘草(炙)一兩半. 右四味, 以水七升, 先煮麻黃, 減二升, 掠去上沫. 內諸藥煮取三升, 去滓, 溫服八合. 必令汗出徹身, 不然恐邪不盡散也.”

73) 漢·張仲景 著. 晉·王叔和 撰次. 宋·成無已 注. 明·汪濟川 校.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68.

74) 漢·張仲景 著. 晉·王叔和 撰次. 宋·成無已 注. 明·汪濟川 校.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68.

75)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p.189-190. “大靑龍湯, 治天行病, 表不解, 心下有水氣, 乾嘔, 發熱而喘咳不已者. 麻黃(去節), 細辛, 芍藥, 甘草(炙), 桂枝各三兩, 五味子半升, 半夏半升, 乾薑三兩, 右八味, 以水一斗, 先煮麻黃, 減二升, 掠去上沫. 內諸藥,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76) 漢·張仲景 著. 晉·王叔和 撰次. 宋·成無已 注. 明·汪濟川 校.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70. “傷寒表不解, 心下有水氣, 乾嘔, 發熱而咳, 或渴, 或利, 或噎, 或小便不利, 少腹滿, 或喘者, 小青龍湯主之.”

77)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

【도표 3】 방제명은 같으나 방제 구성과 주치가 다른 경우

| 『보행결』 | 주치 | 구성 | 『상한론』 |
|-------|--|---|-------|
| 小青龍湯 | 治天行, 發熱惡寒, 汗不出而喘, 身疼痛, 脈緊者方 | 麻黃三兩, 杏仁半升(熬, 打), 桂枝二兩, 甘草(炙)一兩半 | |
| | 太陽病, 頭痛發熱, 身痛, 腰痛, 骨節疼痛, 惡風, 無汗而喘者. | 麻黃三兩, 桂枝二兩, 甘草一兩(炙), 杏仁七十個. | 麻黃湯 |
| 大青龍湯 | 治天行病, 表不解, 心下有水氣, 乾嘔, 發熱而喘咳不已者. | 麻黃(去節)、細辛、芍藥、甘草(炙)、桂枝各三兩, 五味子半升, 半夏半升, 乾薑三兩. | |
| | 傷寒表不解, 心下有水氣, 乾嘔發熱而咳, 或渴, 或利, 或噎, 或小便不利, 少腹滿, 或喘者. | 麻黃(三兩, 去節)、芍藥(三兩)、五味子(半升)、乾薑(三兩)、甘草(三兩, 炙)、桂枝(三兩, 去皮)、半夏(半升, 洗)、細辛(三兩). | 小青龍湯 |

【도표 4】 하나의 방제 가운데 여러 방제를 포함한 경우

| 『보행결』 | 주치 | 구성 | 『상한론』 |
|-------|--|---|--------------|
| 大玄武湯 | 治腎氣虛疲, 少腹中冷, 腰背沉重, 四肢冷清, 小便不利, 大便鴨漉, 日十餘行, 氣懨力弱者方. | 茯苓三兩, 白朮二兩, 附子一枚(炮), 芍藥二兩, 乾薑二兩, 人參二兩, 甘草二兩(炙). | 眞武湯과 理中丸의 合方 |

‘大玄武湯’의 방약 구성을 보면 『상한론』의 ‘眞武湯’과 ‘理中丸’ 두 방제의 合方이며, 主治에 있어 ‘腎氣虛疲’、‘腰背沉重’、‘四肢清’、‘氣力弱’은 바로 腎陽虛、命門火衰에 해당하여 ‘대현무탕’과 ‘진무탕’은 腎陽의 虛함을 다스리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같다. 그러나 ‘小便不利, 大便鴨漉, 日十餘行’은 脾陽이 虛하여 水濕이 運化하지 못하여 濕濁下泛한 증상인 ‘이중환’의 ‘霍亂’、‘不用水者’⁷⁸⁾의 病機와 같으며, 이는 모두 脾陽이 虛하여 水濕이 下注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대현무탕’은 비록 ‘진무탕’의 “自下利者,

此爲有水氣”⁷⁹⁾와 ‘이중환’의 ‘霍亂’、‘不用水’한 증상은 볼 수 없지만, 病機인 腎陽虛、命門火衰、火不暖土、脾腎陽虛의 경우는 ‘진무탕’의 ‘腎陽虛’、‘이중환’의 脾陽虛와 같다. 양자가 합쳐져 하나가 된 것으로 또한 脾腎陽虛이다. 질병은 다르지만 병기는 같음이 있으니, 이는 두 가지 방제가 합쳐져 하나의 방제가 된 것이다.

5) 방제 구성은 같고 주치가 다르지만 방약의 가감이 같은 경우

(1) ‘小補脾湯’

『보행결』에서 “小補脾湯은 飲食不消, 時自吐利, 吐利已, 心中苦饑, 無力, 身重, 足痿, 善轉筋 한 경우를 다스리는 방제이다. 방제는 인삼, 감초(구운

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92. “大玄武湯, 治腎氣虛疲, 少腹中冷, 腰背沉重, 四肢冷清, 小便不利, 大便鴨漉, 日十餘行, 氣懨力弱者方. 茯苓三兩, 朮二兩, 附子一枚(炮), 芍藥二兩, 乾薑二兩, 人參二兩, 甘草二兩(炙). 右七味, 以水一斗, 煮取四升, 溫服一升, 日三夜一服.”

78) 漢·張仲景 著. 晉·王叔和 撰次. 宋·成無已 注. 明·汪濟川 校.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84.

79) 漢·張仲景 著. 晉·王叔和 撰次. 宋·成無已 注. 明·汪濟川 校.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64.

【도표 5】 방제 구성은 같고 주치가 다르지만 방약의 가감이 같은 경우

| 『보행결』 | 주치 | 구성 | 『상한론』 |
|-------|--|------------------------------|-------|
| 小補脾湯 | 治飲食不消，時自吐利，吐利已， 心中苦饑，無力，身重，足痿， 善轉筋者方 | 人蔘、甘草(炙)、乾薑(各三兩)， 白朮(一兩). | |
| | 霍亂，頭痛，發熱，身疼痛，熱多欲 飲水者寒，五苓散主之；寒多不用水 者，理中丸主之. | 人蔘、甘草(炙)、白朮、乾薑(各三 兩). | 理中丸 |

것), 건강이 각각 3냥, 백출 1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4미를 물 8되로 달여서 3되가 되면 하루 3번으로 나눠 복용한다. 臍上에 築動으로 고통스런 경우는 백출을 빼고 계지 4냥을 넣고, 토를 많이 하면 백출을 빼고 생강 3냥을 넣는다. 설사가 잦으면 백출을 다시 사용하고,心悸가 있으면 복령 1푼을 더한다. 渴欲飲한 경우는 백출을 4냥 반까지 더하고, 腹中滿하면 백출을 제거하고 부자 1개(구운 것)를 넣는다. 腹中痛한 경우는 인삼 1푼을 더하고, 한하면 건강 1푼을 더한다.”⁸⁰⁾고 하였다.

‘小補脾湯’은 방약에 있어 『상한론』의 ‘理中丸’과 연관이 있다. 主治에 있어 ‘이중환’은 “霍亂”、寒多不用水者”⁸¹⁾를 다스리며, ‘소보비탕’은 ‘飲食不化, 時自吐利’를 치료하므로 모두 吐利가 있지만 病機는 같지 않다. ‘이중환’은 外邪侵入, 中焦失運, 自吐利의 경우이고 ‘小補脾湯’은 脾氣不足으로 인한 水穀不化의 경우이다. 前者는 外邪가 있고 後者는 裏虛인 경우로 즉 同病이 아니지만 모두 中焦失運의 경우에 방제를 사용함에 있어 같은 경우이다. 또한 두 방제의 공통점은 藥味의 加減이 기본적으로 같다. ‘이중환’의 加減은 “만약 배꼽 위가 절구질하듯 두근거리

면 腎氣가 요동치는 것이므로 백출을 빼고 계지를 4냥 넣는다.”、“토를 많이 하면 백출을 빼고 생강 3냥을 더한다.”、“설사가 잦으면 다시 백출을 쓰고 두근거릴 때에는 복령 2량을 넣는다.”、“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싶으면 백출을 넣어 이전의 것에 더하여 4냥 반이 되게 한다.”、“뱃속이 아플 때에는 인삼을 넣어 이전의 것에 더하여 4냥 반이 되게 한다.”、“배가 찰 때는 건강을 넣어 이전의 것에 더하여 4냥 반이 되게 한다.”、“배가 그득할 경우에는 백출을 빼고 부자1개를 넣는다.”⁸²⁾ 등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소보비탕’과 ‘이중환’은 어찌하면 원래 하나의 방제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모두 『탕액경법』에서 출발했는데 『상한론』은 傷寒에 관련된 내용만을 논술함에 의미를 두었기에 傷寒과 관련이 없는 것은 생략하여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중환’이 있었을 것이다.

III. 結 論

저자는 본론의 연구를 통하여 최근 새롭게 조명되는 敦煌學에 있어 『輔行訣臟腑用藥法要』를 중심으로 간단한 분석과 조사를 통하여,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에 수록된 方劑의 모습을 연구하여 정리 보고하는 바이다.

80)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p.177-178. “小補脾湯, 治飲食不消, 時自吐利, 吐利已, 心中苦饑, 無力, 身重, 足痿, 善轉筋者方. 人蔘、甘草(炙)、乾薑(各三兩), 朮(一兩). 右四味, 以水八升, 煮取三升, 分三服, 日三. 苦臍上築動者, 去朮, 加桂四兩. 吐多者, 去朮, 加生薑三兩. 下多者, 選用朮. 心中悸者, 加茯苓一分. 渴欲飲者, 加朮至四兩半. 腹中滿者, 去朮, 加附子一枚, 炮. 腹中痛者, 加人蔘一分. 寒者, 加乾薑一分.”

81) 漢·張仲景 著. 晉·王叔和 撰次. 宋·成無已 注. 明·汪濟川 校.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84.

82) 漢·張仲景 著. 晉·王叔和 撰次. 宋·成無已 注. 明·汪濟川 校.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85. “若臍上築者, 腎氣動也, 去朮加桂四兩”、“吐多者, 去朮, 加生薑三兩”、“下多者, 選用朮, 悸者, 加茯苓二兩”、“渴欲得水者, 加朮, 足前成四兩半”、“腹中痛者, 加人蔘, 足前成四兩半”、“寒者, 加乾薑, 足前成四兩半”、“腹滿者, 去朮, 加附子一枚.”

(1) 『輔行訣臟腑用藥法要』는 敦煌 遺書 가운데 대표적인 저작으로 원래 두루마리에 쓰여 敦煌의 千佛洞에 저장되어 있었다. 清末 프랑스의 선교사인 Paul Pelliot에 의해 도난당했지만, 이후 河北의 張握南이 收藏하게 되었다. 現在 流傳되는 판본으로는 2권의 筆寫本이 있는데, 하나는 張大昌이 원본이 불탄 이후 回顧한 追憶本과 또 다른 판본으로 장대창의 제자가 베껴 쓴 筆寫本이 있다.

『보행결』의 成書年代는 빠르면 南北朝이며, 책 속에는 실전된 『湯液經法』과 『桐君藥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漢代부터 南北朝時期까지 유전되었던 『탕액경법』은, 『보행결』에서 『보행결』은 『탕액경법』의 醫方을 계승하였고 『상한잡병론』은 『탕액경법』을 참고한 내용이 있다.'고 하였다.

『鍼灸甲乙經·序』에서 '仲景이 伊尹의 『湯液』을 확충하여 『傷寒』을 지었다'는 사실과 『탕액경』, 『상한잡병론』, 『보행결』의 몇몇 방제의 분석에 근거하자면, 『보행결』과 『상한잡병론』의 방제는 祖本方書인 『탕액경법』을 同源으로 하고 있다. 즉 『보행결』에 기재된 방제들은 『탕액경법』에 기재된 것이므로 『상한잡병론』과 『보행결』은 모두 『탕액경법』으로 근원이 같다.

다만 장중경이 『상한잡병론』에서 '博采衆方'이라 하여, 그가 참고한 方名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黃巾賊의 難으로 道教를 배척한 시대적 배경과 당시 藥名을 대신하여 方名으로 정했던 사회적인 풍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보행결』에 수록된 약 50여수의 방제 가운데 『상한잡병론』 유사한 방제인 18首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방제 구성과 主治가 같지만 方名이 다른 9가지는 『보행결』의 '소보심탕', '대보심탕', '대양단탕'은 『금궤요략』 '과루해백반하탕', '과루해백계지탕', '황기건중탕'이며, 또한 『보행결』의 '소사비탕', '소양단탕', '정양단탕', '소음단탕', '대음단탕', '소주오탕'은 『상한론』의 '(통맥)사역탕', '계지탕', '소건중탕', '황금가반하생강탕', '소시호탕', '황련야교탕'과 유사한 경우이다.

② 방제 구성은 같으나 主治와 方名이 다른 5가지는 『보행결』의 '사심탕', '건중보비탕', '소백호탕', '대백호탕', '소현무탕'으로, 『상한론』의 '건강황련황금인삼탕', '소건중탕', '백호탕', '죽엽석고탕', '진무탕'과 유사한 경우이다.

③ 方名은 같으나 구성과 주치가 다른 2가지는 『보행결』의 '소정룡탕', '대정룡탕'으로, 『상한론』의 '마황탕', '소정룡탕'과 유사하다.

④ 하나의 방제에 여러 방제가 함방된 예로는 『보행결』의 '대현무탕'과 『상한론』의 '진무탕'과 '이중환'의 1가지 경우가 있다.

⑤ 방제 구성과 약물의 加減은 같지만 主治가 다른 예로는 『보행결』의 '소보비탕'과 『상한론』의 '이중환'의 1가지 경우가 있다.

IV. 參考文獻

<논문>

1. 박종현, 박시덕, 신상우. 돈황본 상한론 중 보행결장부용약법요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회원 논문집. 2007. 13(1).
2. 徐春霖. 論伊尹湯液. 中華醫史雜誌. 1984. 14(3). p.150.
3. 宋春光. 輔行訣臟腑用藥法要研究述評. 江西中醫學院學報. 2007. 19(4).
4. 王淑民. 輔行訣臟腑用藥法要與湯液經法、傷寒雜病論三書方劑關係的探討. 中醫雜誌. 1998. 39(11). p.696.
5. 王淑民. 敦煌卷子輔行訣臟腑用藥法要考. 甘肅中醫學院學報. 1990. 7(4). pp.15-17.
6. 張儂, 劉強. 敦煌本輔行訣臟腑用藥法要古醫方的源流. 敦煌研究. 2002. 6. p.65.
7. 張永文, 郭郡浩, 蔡輝. 敦煌遺書輔行訣臟腑用藥法要. 安徽中醫學院學報. 2003. 22(3).
8. 張永文. 以敦煌遺書法要探討張仲景經方之源. 中醫基礎醫學雜誌. 2002. 8(3).
9. 錢超塵. 仲景論廣伊尹湯液考. 江西中醫學院學報. 2003. 15(2). pp.26-29.
10. 韓鑫冰, 顏新. 輔行訣臟腑用藥法要中的二旦、四神湯組方原理探析. 遼寧中醫雜誌. 2010. 37(增刊).

<단행본>

1. 馬繼興 主編. 敦煌古醫籍考釋. 江西.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8. p.115. pp.115-137.
2.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 p.174, 177, 182, 183, 184, 185, 187, 188, 189, 190, 191, 192. pp.169-206, 177-178, 184-185, 189-190, 190-191.
3.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436.
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卷九.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181.
5. 王燾 撰. 高文鑄 校注. 外臺秘要·卷二.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1.
6. 王淑民. 敦煌石窟秘藏醫方. 北京. 北京醫科大學中國協和醫科大學聯合出版社. 1999. p.1, 26.
7. 王好古. 陰證略例·伊尹湯液論例. 中國醫學大成·卷3. 長沙. 岳麓書社. 1992. pp.994-995.
8. 王好古. 湯液本草序. 中國醫學大成續編·卷3. 長沙. 岳麓書社. 1992. p.178.
9.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滙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3-5.
10. 明·張景岳 著. 類經(上). 서울. 대성문화사. 1982. p.255.
11. 張大昌, 錢超塵 主編. 輔行訣臟腑用藥法要傳承集. 北京. 學苑出版社. 2010. p.38.
12. 漢·張仲景 述. 晉·王叔和 集. 金匱要略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0, 28.
13. 漢·張仲景 著. 晉·王叔和 撰次. 宋·成無己 注. 明·汪濟川 校.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7, 68, 70, 84, 91, 121, 124, 159, 164, 177, 184, 185, 189.
14. 晉·皇甫謐 著. 張燦理, 徐國仟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6, 17.
2006. p.169.
2. 班固 撰. 漢書·卷三十.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中國基本古籍考[CD-ROM]. 北京. 黃山書社. 2006. p.535.
3. 魏荔彤 撰. 傷寒論本義·卷首.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中國基本古籍考[CD-ROM]. 北京. 黃山書社. 2006. p.1.
4. 劉安 撰. 淮南鴻烈解·卷第十九.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中國基本古籍考[CD-ROM]. 北京. 黃山書社. 2006. p.241.

<기타매체>

1. 高承 撰. 事物紀原·卷七.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中國基本古籍考[CD-ROM]. 北京. 黃山書